

자료제공 : 2024. 7. 10. 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

담당부서 : 어르신복지과

어르신복지과장	김형태	02-2133-7400
노후준비지원팀장	박백웅	02-2133-7403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5쪽

서울시, 폐지수집 어르신 3,007명...일자리 전환 유도 등 지속적 지원책 추진해 나간다

- 80대 이상 47%, 월평균 소득 89만 5천 원, 노인일자리 참여자 49%로 나타나
- 전 자치구에 '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' 지정, 노인적합형 일자리 연계
- 폐지수집 지속 원할 땐, '폐지수집 사업단' 운영·평균수입 2배 급여방식으로 지급

- 서울시는 관내에서 3,007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. 또한 80대 이상이 1,412명으로 47%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액은 전국보다 12만 9천 원 높은 89만 5천 원으로 나타났다.
- 서울시는 이러한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현황과 함께 지난 6월 말에 발표한 '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'을 잘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.

□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의 현황

○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 : 3,007명

- 남자 1,168명(39%), 여자 1,839명(61%)

- 80대 이상 1,412명(47%), 70대 1,231명(41%), 60대 364명(12%)

※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(2024.2.1.~5.24.) 결과 제출 이후

서울시 자체 추가 보완 조사 결과 3,007명으로 집계.

○ 노인일자리 참여 : 1,468명(49%)

- 폐지수집 사업단 참여 : 13개 자치구 14개 사업단 1,253명 (42%)

※ 환경미화,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, 노노케어 등 일반 일자리 215명

- 폐지수입 사업단 참여 소득 : 305천원 (전국 평균 373천원)

○ 월평균 소득 : 895천원 (전국 평균 766천원)

※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, 근로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 금액임

※ 2023년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시 폐지수집 활동 평균 소득 : 151천원

○ 생활수준 : 기초수급자 23%(전국 평균 28%)

-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률 : 84% (전국 평균 89%)

□ 한편, 시는 지난 6월 말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.

<술자치구에 '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' 지정, 노인적합형 일자리 연계>

□ 이번 지원의 가장 큰 축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 갈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일 자리를 제공하

는 것이다. 어르신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·알선받지 못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·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.

-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 ‘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’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,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- 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,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다. 특히 익숙한 일을 이어가려는 어르신들의 성향을 반영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꽂초 수거,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의 형태는 유사하나 노동의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하여 연계할 계획이다.
- 상대적으로 폐지수집 활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60대 어르신들 에겐 경험과 체력 등을 고려한 복지시설도우미와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 자리를 적극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. 노년 초기부터 저소득 폐지수집을 시작해 장기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.

<폐지수집 지속 원할 땐, 평균수입 2배 급여방식으로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단 참여>

-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동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폐지수집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. 일자리 연계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‘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’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.

- ‘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’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(평균 30만원)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. 현재 13개구 1,253명이 일하는 중인데 전 자치구 1,800명으로 1.5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- 실제로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 433명 대상으로 조사(5.22.~23.)를 펼친 결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, 당일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어 폐지수집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60%에 달했다.
-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,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꺼리는 어르신을 위해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찾아낸다.
- 시는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생계수급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지침 개정과 65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이 수급탈락 없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지침도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.

<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 구축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체계적 지원 강화 >

- 다음으로, ‘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’도 구축해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 상담, 맞춤형지원과 후속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.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다.
-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에 대해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초기상담

을 실시해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1차 연계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다. 이외에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, 필요서비스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.

- 특히 어르신의 위기상황 발생 시 복지플래너가 적극 개입해 긴급복지, 주거비 지원, 재가지원서비스, 방문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.

<안전보험 가입,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지급, 휴게시설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>

□ 보호장비도 없이 어두운 밤 위험천만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도 챙긴다. 우선 ‘어르신 안전보험’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.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.

- 이와 함께 민간기업 후원 연계하여 경광등, 경음기 등이 부착된 경량 리어카와 이동이 용이한 안전손수레와 밤에도 식별하기 쉬운 야광조끼·밴드 등도 지원한다.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냉방·방한 용품도 지급 계획이다.
- 관련해 SK텔레콤 ‘직원 끝전모으기’를 통한 후원액 3,300만원으로 경량리어카 42대, 쿨타월 및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2,040개를 지난 6월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지원했다.

□ 일하다 마땅히 숨돌릴 공간도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 관내 고물상(362개)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. 고물상 내에 의자, 음수대 등을 갖춘 간이휴게소를 설치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.